

# 뛰는 호랑이, 포수의 마음을 흠쳐라



KIA 팀 도루 47개...리그 7위  
김주찬·신종길 합류 늦어 저조  
스피드로 화력 극대화 해야



올 시즌 '호랑이 군단'은 한층 단단해진 방패로 싸움을 하고 있다.

팀도루 1위는 NC다. NC는 테임즈·이호준을 중심으로 한 화끈한 화력에 91개의 도루까지 곁들이면서 선두권 질주를 하고 있다.

NC 박민우(24개)와 함께 삼성 박해민(23개), kt 이대형(23개)이 도루 1위 자리를 놓고 다투고 있는 가운데 두 자릿수 도루를 넘어선 선수는 총 15명이다.

KIA에서는 최용규의 8개가 최다도루다. 외국인 선수 필과 대졸 루키 김호영이 6차례, 강한울이 5차례 베이스를 훔쳤다. 허를 찌르는 3개의 도루를 만들어낸 이범호는 김주찬, 이호신, 김원섭과 팀 내 공동 5위다.

리그를 대표하는 빠른 발이 움직이지 못하고 있

다. 프로야구 역대 두 번째 '9년 연속 두 자릿수 도루' 타이틀을 가지고 있는 김주찬은 올 시즌 두 자릿수 홈런을 먼저 완성하면서 '호타준족'에서 '파워히터'로 변신했다.

김주찬은 올 시즌 웨이트를 통해 파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잦은 부상으로 주루에 대한 부담은 늘었다. 시즌 초에도 공격적인 주루를 하다가 부상을 입기도 했다.

발로는 빠지지 않는 신종길도 2개의 도루만 기록하고 있다. 시범경기 마지막날 견갑골 골절 부상을 당하면서 뒤늦게 시즌을 출발했고, 타격 부진으로 별 기회를 만들어내지 못하고 있다.

기대주 강한울도 자신의 주력을 마음껏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시즌 초 김기태 감독이 공격적인 주루를 강조하며 말소 없는 1일 2군행을 명하기도

했지만 공·수에서 풀타임을 소화하느라 주루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

화력이 부족한 KIA에게는 스피드가 필요하다. 지난 11일 넥센과의 경기에서 김주찬은 녹슬지 않은 발로 공격력을 극대화했다. 3-3으로 맞선 6회, 김주찬과 필의 연속 안타로 무사 1·2루가 만들어졌다. 2루에 있던 김주찬이 순식간에 3루로 파고 들었고 1루에 있던 필까지 2루로 향하면서 상대 배터리가 흔들렸다. 나지완이 유격수 땅볼로 돌아섰지만 이후 연속 볼넷이 나오면서 경기는 5-3, KIA의 역전승으로 끝났다.

단단해진 방패, 스피드로 장의 매서움까지 더해 야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 ML 4번타자 강정호

화이트삭스전 2안타·1볼넷...팀 승리 이끌어

강정호(28·피츠버그 파이리츠)가 4번 타자로 나선 두 번째 경기에서 멀티히트(1경기 2안타 이상)를 기록하며 맹활약했다.

강정호는 16일 시카고 화이트삭스와의 홈 경기에서 4번 타자 3루수로 출전해 4타수 2안

타 2타점 1볼넷으로 경기를 마쳤다. 피츠버그는 화이트삭스를 11-0으로 제압하고 5연승을 달렸다.

강정호는 1-0으로 앞선 1회말 무사 1·3루에서 화이트삭스의 선발 투수 카를로스 로돈과 3볼-1스트라이크 승부 끝에 시속 94마일(151km)짜리 4번째 공을 받아쳐 좌전 안타를 만들었다. 호세 타바타의 적시타까지 터져 나오면서 피츠버그는 1회에 5점을 뽐내었다.

강정호는 팀이 7-0으로 앞선 5회말 선두타자로 세 번째 타석에 들어서 8구까지 가는 접전 끝에 볼넷을 걸러냈다. 강정호는 조디 머서의 2루타로 홈에 들어오며 득점을 추가했다. 강정호는 10-0으로 앞선 6회말 1사 2루에서 네 번째 타석에 들어서 1타점 적시 2루타를 때려내 멀티히트를 기록했다. 이날까지 48경기에 출전한 강정호가 4번 타자로 나선 것은 전날에 이어 두 번째다. /연합뉴스



## 안병훈, 돌풍 다시 한번

내일 US오픈 출전

한국남자골프의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른 안병훈(22)이 시즌 두 번째 메이저대회 US오픈에서 다시 한번 돌풍을 일으킬 준비를 마쳤다. 오는 18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주 유니버시티 플레이스의 체임버스 베이 골프클럽(파70)에서 열리는 제115회 US오픈은 브리티시오픈과 함께 전통을 자랑하는 메이저대회다.

유럽의 2부 투어에서 3년 동안 힘든 시간을 보낸 안병훈은 올해부터 정규 투어에 진출, 특급대회인 BMW PGA 챔피언십 우승컵을 들어올리며 US오픈 출전권을 따냈다. 이번 주 세계랭킹에서도 50위에 올라 한국 선수 중 가장 높은 순위를 차지했다.

안병훈의 US오픈은 이번이 두 번째다. 안병훈은 2009년 US아마추어 챔피언십 우승

자 자격으로 2010년 US오픈에 출전했지만 컷탈락했다. 이후 이렇다할 성적을 내지 못했던 안병훈은 올해 들어 일취월장한 기량을 앞세워 출전권을 따냈다.

유럽의 강호들이 출전한 BMW PGA 챔피언십에서 안병훈은 300야드를 넘나드는 드라이버샷과 정확한 아이언샷을 뽐내며 우승을 거머쥐었다. 이 대회 우승으로 자신감을 충전한 안병훈은 브룩스 캠퍼(미국), 러셀 헨리(미국)와 함께 1.2라운드를 치른다.

톱 랭커들의 메이저 우승 경쟁도 뜨겁다. 2011년 이 대회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1위 로리 매킬로이(북아일랜드)는 올해 마스터스 우승자이자 세계랭킹 2위 조던 스피스(미국)와 볼꽃 뛰는 경쟁을 벌일 전망이다. 추락한 골프황제 타이거 우즈(미국)도 메이저 15승에 도전장을 던졌다. /연합뉴스

## 4연승 제물은 '대전'

K리그클래식 16R...광주 FC, 오늘 원정

'돌풍의 팀' 광주 FC가 구단 역사상 첫 4연승에 도전한다.

광주 FC가 17일 오후 7시30분 대전월드컵경기장에서 대전 시티즌과 K리그 클래식 16라운드 원정경기를 치른다. 대전전 4연승과 팀의 첫 4연승이 걸린 한판 대결이다.

광주는 지난 15라운드 수원과의 원정 경기에서 수비수 정준원이 퇴장을 당하면서 수적 열세에 몰렸지만 상대의 자책골로 얻은 득점을 지키며 1-0 승리를 거뒀다. 이 승리로 시즌 처음 3연승 질주를 한 광주는 6승4무5패(승점 22)가 되면서 리그 5위로 올라섰다.

대전과의 경기에서 광주는 역사에 도전한다. 창단 첫 4연승이 광주가 도전하는 역사다. 창단 이후 3연승을 찍은 적은 모두 4차례. 이번이 4연승 문턱에서 주저앉았다.

이번에는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 상승세를 타고 있던 제주와 전남 그리고 수원을 잇달아 제압하면서 시즌 초반에 불었던 광주의 거센 돌풍을 재점화했다. 지난 수원과의 경기에서는 수적 열세를 딛고 1무4패라는 부진의 사슬까지 끊어내면서 자신감도 날린다.

4연승이라는 목표를 두고 만나는 상대는 대전이다. 광주가 이번 경기에서 승리를 가져온다면 대전전 4연승까지 동시에 이뤄진다. 앞선 3경기에서 광주는 모두 무실점 승리를 완성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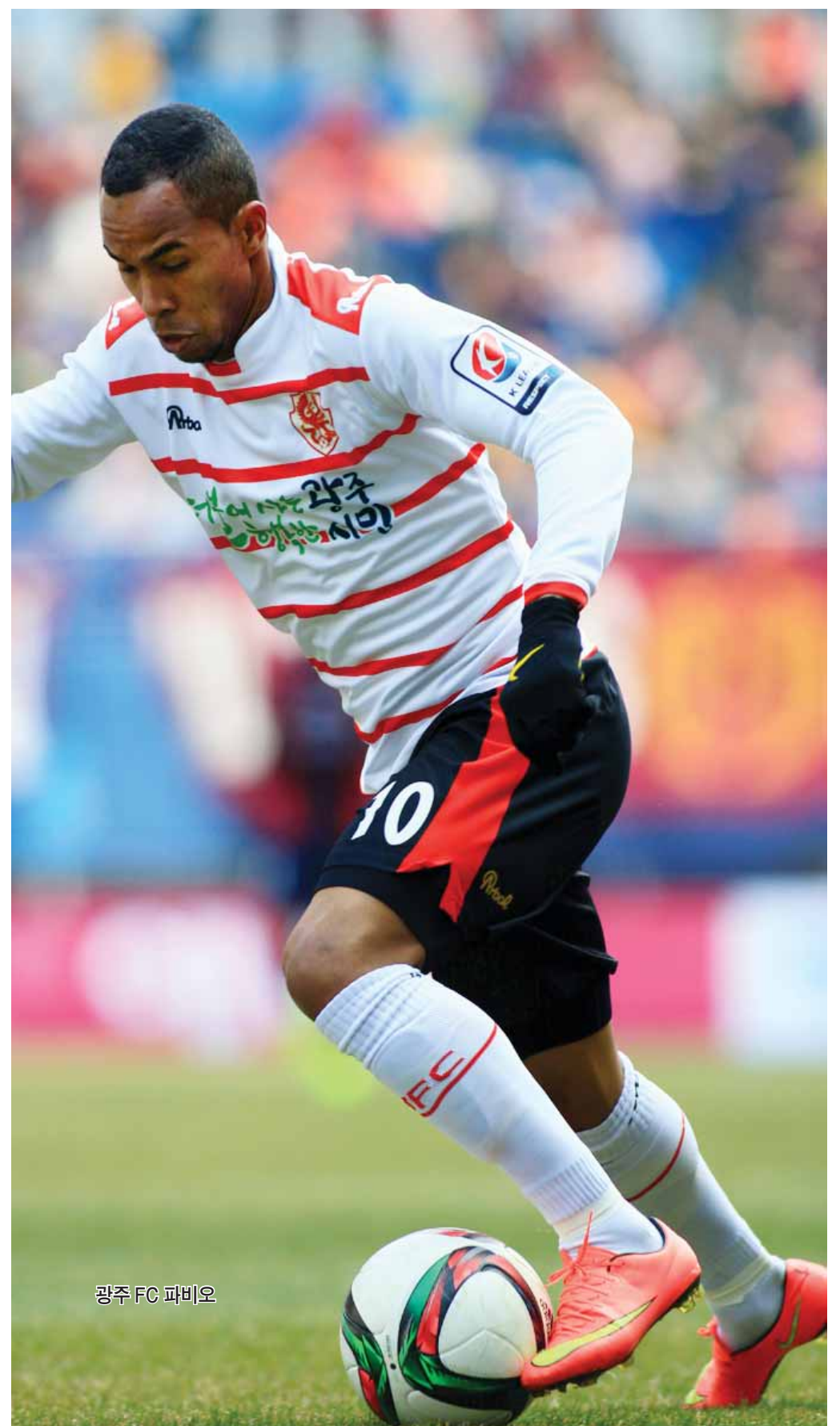
다시 찾은 클래식 무대에서 두 승격팀은 극과 극의 행보를 하고 있다. 광주는 패스를 바탕으로 한 점유율 축구를 확고한 팀 컬러를 만들며 상승장구하고 있는 반면 대전은 단 1승을 거두는데 그치며 1승3무11패(승점 6)로 최하위에 머물고 있다.

원정에 강한 광주와 '안방 무승' 대전의 만남이기도 하다. 원정 2연승 중인 광주는 올 시즌 원정경기서 4승1무2패의 성적표를 내면서 64.3%의 승률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대전은 올 시즌 홈에서 한 차례도 승리를 거두지 못했다.

지옥의 원정 10연전을 치르느라 체력적인 문제가 걸림돌이지만 광주는 지난 7일 수원전 이후 10일 동안 충분한 휴식을 취하며 에너지를 채웠다.

최근 분위기가 전력을 보면 광주에게는 창단 첫 4연승을 이룰 수 있는 절호의 기회다. 그러나 방심은 금물이다. 느긋하게 상대의 약점을 이용해야 한다. 대전은 승리가 절박하다. 대전의 조급함을 이용해 경기 분위기를 끌어와야 한다.

광주의 4연승 도전이 이번에는 성공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김여울기자 wool@kwangju.co.kr



광주 FC 파비오